

정찬주 작가의
법정 스님이야기
⑯ 절은 절하는 곳

사찰은 장사하는 곳 아닙니다

법정 스님은 오입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입(寺入)이라고 말씀했다. 사입이란 단어가 사전에는 없지만 광신적으로 절에 다니는 것을 뜻하는 듯했다. 제 정신으로 살자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인데, 가정생활을 다 팽개치고 미쳐서 다닌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스님은 말씀했다.

스님은 절집 안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행태도 결코 방관하지 않았다. 특히 절 안에서 버젓이 벌이고 있는 상행위를 못마땅해 하셨다. 길상사 경내에 구내서점을 운영해 궁한 절 살림을 개선하자는 대중의 건의도 스님은 일언지하에 거절하셨다. 구내서점을 연다면 스님 책들도 진열될 텐데 책장사하려고 길상사를 개원한 것이 아니라며 그러셨다. 당시 어렵게 주지 소임을 보았던 C스님이 어느 날 내게 이와 같은 일화를 들려주었던 것이다. 물론 법정 스님의 우려처럼 스님이 책장사한다고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스님은 허물한 톨도 보이지 않으려 하셨던 것 같다.

그런데 요즘 큰 절에 가보면 기념품 가게가 유행처럼 번져



일러스트 · 정윤경

있다. 절 안에까지 지폐가 위력을 발휘하는 배금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안내소나 종무소 앞에는 불단에 올릴 쌀은 얼마, 초는 얼마, 아직 짓지도 않은 전각의 대들보는 얼마, 기둥은 얼마, 서까래는 얼마, 기왓장은 얼마 하고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법정 스님이 보았다면 어떠하셨을지 짐작이 간다. 아마도 혀를 끌끌 차셨을 것이다. 보시했다는 생각마저 버리라고 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매혈기〉를 발표하여 우리에게도 친숙한 중국의 소설가인 위화(余華)가 수덕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절과 중국 절을 비교한 적이 있다.

"한국의 절은 관광객이 많지만 조용합니다. 중국 절은 돈이 많은데도 절에서 초나 향을 비싸게 팝니다. 중국의 절은 규모가 크고 스님들이 많아서 회사가 사업하는 느낌인데 한국 사찰은 다릅니다."

중국 절의 상업주의, 즉 종교장사를 비난한 말인데 그가 우리 절을 주마간산 식으로 보고 말한 것 같아 속이 뜨끔하다. 과연, 절이 종교장사나 하는 곳일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나처럼 암자를 많이 기행한 사람도 드물 것이다. 〈암자로 가는 길〉 3권을 발간했다.

법정 스님은 D일보 인터뷰 중에 기자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을 묻자 〈암자로 가는 길〉이라고 추천하신 적이 있다. 우리나라 암자 400여 군데를 기행한 뒤 마음에 여운을 남긴 곳만 선정해 썼다. 암자기행 중에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절은 절하는 곳이다' 라는 뻔한 사실이다.

절은 기복이나 단순한 굴신운동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하심의 수행, 나를 비우는 참회의 수행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절을 하다 보면 온갖 잡념들은 사라지고 오롯이 절하는 본래의 나만 남아 있었던 것이다.

'송림사 사태' 등 입법 · 행정 개선의지 다져

조계종 제209회 중앙종회 정기회 폐회

종책질의서 지적사항 쏟아져

조계종 제35대 집행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중앙종회서 중앙종회의원들이 송림사 前주지 성폭행 의혹 등으로 드러난 입법 · 행정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의지를 다졌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는 종정감사 이후 11월 8일 속개한 제209회 정기회서 종헌종법 제개정안을 모두 이월했지만 중앙종무기관 각 부서별 종책질의를 통해 '송림사 사태' 등 다양한 분야서 드러난 종무 미비사항을 지적했다.

먼저 화림 스님은 지난여름 초심호계위원이자 송림사 주지였던 H스님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종단 대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H스님은 사건이 불거진 뒤 총무원에 환속제적원을 제출, 수행자에서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화림 스님은 "누가 봐도 문제되는 분이 종단 징계도 받지 않고 환속계를 냈다. 환속계를 냈다 하더라도 징계절차를 밟거나 직권제적이 필요하다"고 총무부에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총무부장 지현 스님은 "환속계를 제출하면 징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화림 스님은 "그렇다면 누구든지 사고치고 환속계부터 내면 징계 못하는 것 아니냐. 종회도 입법미비사항을 고쳐야하지만 종단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광전 스님은 "공직에서 비위를 저지른 스님이 환속하면 죄를 물을 수 없다. 그러니 종무기관에서 환속제적원을 바로 처리하지 말고 시간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광 스님은 H스님의 재산에 대한 환수 노력도 당부했다. 스님은 "송림사 사건으로 해당 교구를 비롯해 불교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극에 달했다. 재산관계를 파악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현 스님은 "내용을 파악하고 재무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성문 스님은 중앙종회 인사심의과정서 추천된 개인에게 제출받는 '범죄경력회보서'를 회람하는 것이 불법행위임을 지적했다. 스님은 "본인 확인 외에는 제출한 사람도, 활용한 사람도 범법자라고 한다. 심지어 실

멸빈자 사면안 또다시 이월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승인
고속도로 표지판 속 사찰명
삭제 중지 · 지침 개정 촉구도

효된 형까지 적시하라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는 사회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어떤 방법이든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화림 스님은 "종단에 수사권이 없고 권리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경찰서를 통한 신원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 스님들이 전과가 없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자기방어권에 속한다"면서도 "정부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동의의 뜻을 밝혔다.

또한 종회의원들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소규모사찰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도 요청했다. 이외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세사찰 인건비 부담이 불법행위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강구 △사찰재산 처분요청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 등도 당부했다.

종헌종법안은 모두 이월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과 관련해서는 민감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총무원장선거과정서 빚어진 논란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뤘다.

만당 스님은 종립특별선원보조금 2억5000만원에 대한 삭감을 주장했다. 결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수좌스님들이 종단개혁연석회의가 주최한 촛불법회에 참가해 종단을 비방했다는 것이다. 만당 스님은 "결제 중에 부화뇌동해 조계종 망하라고 외친 수좌들이 있다.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도 종단은 제재 없이 예산지원을 부지런히 해줘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종립특별선원이 수행도량으로 제대로 역할하고, 일신하기 전까지는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회의원들은 반대의견을 표하면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만 감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현 스님은 "2억5000만원이 적은 돈이라고 할 순 없지만 100명에 달하는 식구들이 살고 있는 종립선원이다. 예산 삭감은 반대한다"고 했으며, 제정 스님은 "우리는 선종이다. 일부 수좌 문제는 호법부에서 해결하면 된다. 종립선원 지원은 하되 결제 중 빠져나온 사람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만당 스님은 보조금에 대한 감사 시행을 전제로 해당 예산 삭감 주장을 철회했다.

안국선원의 종단희사금 중단에 대해서는 오심 스님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스님은 "불교언론문화상 상금과 가로연등설치비 등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데 이것들은 불자들이 기초적으로 신심을 낼 수 있는 매개체다. 돈 좀 있다고, 종단하고 척 지었다고 이러는 건 치사한 일"이라며 "이 부분을 종무기관에서 인지하고 잘 대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감한 발언이 이어지자 환풍 스님은 "지난 것은 지난대로 덮어둬야지 계속 끄집어내 난타하면 새로 출범한 집행부가 불편한 상황이 된다. 이쯤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중재했다. 그러자 금곡 스님은 오심 스님의 발언 취소를 요청했고, 오심 스님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됐다.

이어 중앙종회는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일반회계 269억5800만원 · 특별회계 558억2450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제8기 법계위원 위촉 동의의 건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을 비롯해 각종 위원회 인사안을 통과시키고,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표지판에 대한 사찰명 삭제와 관련해 지침 개정 촉구 성명을 채택키로 했다. 성명은 추후 의장단 윤문을 거친 뒤 최종 발표된다.

아울러 중앙종회는 '멸빈자사면' 종헌개정안과 원로회의 의장단 임기단축에 대한 종헌개정안을 논의 끝에 이월했다. 이와 함께 원로회의 자격요건 중 '재적승'을 삭제하는 원로회의법 개정안, 사면법 제정안도 이월됐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MB정부, 명진 스님 불법사찰 정황 확인

국정원 개혁위 "봉은사 주지직, 국정원 개입 연관성 없어"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을 통해 명진 스님〈사진〉을 지속적으로 불법사찰해온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봉은사 주지직 퇴진 의혹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11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적폐청산 T/F의 주요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 · 심의 내용'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0년 1월부터 민정수석 · 홍보수석 · 기획관리비서관실 등을 통해 명진 스님의 사생활과 비위, 발언 등 특이동향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비위사실과 좌파활동 경력을 인터넷상에 적극 확산할 것을 국정원에 요청했으며, 원세훈 前원장은 수차례 명진 스님에 대한 견제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혁위는 "국정원 담당부서는 봉은사 사태와 관련한 조계종 총무원과 명진 스님의 입장 및 대응 동향, 명진 스님의 대정부 · 대통령 비난 발언 및 개인 비위사항 등 동향을 수시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어 "당시 담당부서는 청와대 요청 및 원세훈 前원장의 지시에 따라 수집부서에서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명진 스님의 비리 · 비위 및 특이동향을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 청와대 및 국정원 지휘부에 수차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심리전단이 원 前원장과 청와대 지시로 인터넷 토론글에 투표하거나 댓글을 달고, 인터넷매체에 칼럼을 게재하는 등 방법으로 명진 스님 비판 여론을 조성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봉은사 주지에서 물러난 2010년 11월 이후에도 보수단체를 활용한 심리적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및 주지직 퇴진 관련 국정원 개입 여부'와 관련해 국정원 외압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개혁위는 "국정원 존안자료 및 관련자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이나 명진 스님이 주지직에서 물러나는 과정에 국정원이 외압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원 前원장의 명진 스님에 대한 비위 수집 · 심리전 전개 지시 등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검찰에 수사의뢰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은 7일 기획실장 · 대변인 정문 스님 명의로 논평을 내고 "종단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주요 소임 스님들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과 정치공작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매우 엄중한 우려와 함께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오늘은 김장 삼매경 겨울을 앞둔 산사는 월동준비인 김장으로 분주하다.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향적)는 11월 5~7일 3200포기의 김장을 담갔다.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는 스님의 손이 제법 익숙해 보인다. **글=신성민 기자, 사진=월간 〈해인〉**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11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 (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